

# 익명의 기부천사들 있어... 훈훈한 추석명절

### 서구 금호1동 2016년부터 명절때마다 100만원 돈봉투 북구 석곡동 쌀 100포대·동구 50포대 익명으로 전달

추석을 앞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금호1동 행정복지센터에 한 여성이 찾아왔다. 잠시 두리번 거리던 그녀는 사회복지사로 다가간 직원에게 돈봉투를 건넸다.

돈봉투를 받은 직원이 개봉해보니 방금 은행에서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5만원권 20장(현금100만원)이 들어있었다.

이 여성은 "명절에 외롭고 힘들게 보내실 이웃을 위해 써달라"라는 말만 남긴 채 밖으로 달려갔다. 그는 과거 직장생활을 하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

가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산재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등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매달 일정금액을 모아 100만원의 성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밝히길 꺼려한 이 기부자는 지난 2016년부터 설과 추석 등 6차례 걸쳐 총 600만원을 기부했다.

19일 광주시 일선 자치구에 따르면 추석(24일)을 앞두고 '익명의 기부천사'들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누가 보내주는지도 모르는 선물을 받은 우리네 이웃들은 '아직 살맛 나는 세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석곡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쌀을 전달했다. 쌀

을 건네받은 이웃들은 "추석이라고 해도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쌀을 가져다주니 고맙다"고 연신 감사인사를 했다.

동 직원들이 배달한 쌀은 10kg짜리 20포대도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쌀은 지난 11일 익명의 기부자가 동행정복지센터측에 전달한 것이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센터를 찾아와 "앞으로 10kg짜리 쌀 100포를 5개월간 매달 20포씩 지원하겠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말한 뒤 사라졌다.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에 더이상 사정을 묻지 않았다.

조익준 사회복지담당 계장은 "다른 도심내 마을과 달리 석곡동은 후원자가 많지 않고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많은 상황이다"며 "사소한 물품이라도 기부를 받으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동구에는 배달트럭을 통해 쌀 20kg들이 50포(250만원 상당)가 도착했다. 구청 직원들이 트럭 기사에게 묻자 "보낸 사람이 동호화라고만 밝혔을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익명 기부는 2016년부터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번까지 6차례 이어지고 있다. 모두 20kg짜리 백미 300포대다.

구청 직원들은 매년 일반 판매용이 아닌 포대에 담긴 쌀이 온 것으로 봤을 때 같은 사람이 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갑수록 후원이 줄어들든 상황에서 익명 기부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구청 직원들 사이에서는 익명 기부자들의 신상이 어느 정도 알려진 편이지만 그분들의 뜻을 존중해 더이상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송편 빚기 너무 신나요" 19일 광주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추석한마당 행사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주여성들이 송편을 빚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추석 금품·향응 조심하세요 시·도교육청 '청렴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도교육청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14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부패취약 시기로 보고 교육청 소속기관과 전체 학교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금품·향응 수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공문을 내려보내 몸가짐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추석을 앞두고 장석웅 교육감이 직접 '선물 주고 받기'를 꼭 짚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7일 교육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하위직위자가 상위직위자에게 보내는 선물은 근절됐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장석웅교육감 핵심공약 예산 줄줄이 삭감

전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장석웅 교육감 핵심 공약과 관련한 사업 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액수는 크지 않지만 모두 상징성이 큰 사업이어서 장 교육감의 혁신공약 추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육자치위원회 운영(3500여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남교육 혁신기획단 운영 예산은 요구액 1억4700여만원에서 4000

만원이 깎였다.

교육 공동체 인권교육 지원 예산도 3800여만원 가운데 2300여만원이 삭감됐다.

교육자치위원회는 전남 22개 시·군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민·관 참여 기구로 전남도교육청의 의욕을 보였던 사업이다. 도민이 예산 운영, 교육 정책 제안,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모델을 구축하려 했으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일단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는 교육자치위원회 운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주문했다.

혁신기획단은 인수위 활동이 끝난 데다가 기존 조직 내 정책기획관을 두고도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원들의 평가가 나왔다.

추경안 심의에서 핵심공약 관련예산이 줄줄이 삭감된데 대해 장 교육감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장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당혹스럽다"며 "이 사태를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의회, 자치위·혁신기획단 운영 등 장교육감 "이해·설득 노력 부족" 자성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해질 18:33 달뜨기 15:57 달지기 01:31

출근길 우산챙기세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비온뒤 맑음	19/24
목포	비온뒤 맑음	20/25
여수	비온뒤 맑음	21/23
나주	비온뒤 맑음	19/25
완도	비온뒤 맑음	21/24
구례	비온뒤 맑음	18/25
강진	비온뒤 맑음	19/24
해남	비온뒤 맑음	20/25
장성	비온뒤 맑음	19/24
보성	비온뒤 맑음	19/22
순천	비온뒤 맑음	19/24
영광	비온뒤 맑음	18/25
진도	비온뒤 맑음	20/24
전주	비온뒤 맑음	19/25
군산	비온뒤 맑음	18/23
남원	비온뒤 맑음	19/24
홍산도	흐리고 비	20/24

◇ 바다 날씨

해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	동~남동	1.0~1.5	남서~서	1.0~2.0
남해	앞바다	동~남동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동)	동~남동	0.5~1.5	남서~서	1.0~2.0
	면바다(서)	남동~남	1.0~2.0	남서~서	1.0~2.5

◇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보통: 지외선
- 좋음: 미세먼지

◇ 물때

목적	간조		만조	
	04:45	16:31	10:27	23:42
여수	00:35	12:07	06:05	19:04

◇ 주간 날씨

날짜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날씨	☁	☀	☀	☀	☀	☀	☀
기온	20/25	17/26	15/25	15/25	13/25	14/25	14/25

## 전남대병원 임단협 타결... 노조 파업 철회

전남대병원 임금·단체협상이 19일 타결돼 1주일간 진행된 파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병원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협상을 벌여 올해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2.6% 인상 ▲인력 충원 ▲중환자실 간호인력 1등급 상향 추진 ▲보건의 등 직급 상향 등이다.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2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

전남대병원 노조는 지난 12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확충, 강압적 조직문화 개선, 장시간 노동 근절, 교대 근무자 등의 근무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전남대병원 노조 총파업은 2001년 이후 17년 만이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아직 노조 찬반 투표가 남아있지만, 노사가 합의안을 끌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타결된 것이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hae@

## '영암 버스참사' 할머니들 산업재해 인정

발일 마치고 마을로 돌아가다가 참변을 당한 '영암 버스참사' 피해 할머니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9일 민중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가 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산재 유족급여, 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족 앞으로 나오는 급여는 지급이 완료됐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등급 심사 등이 끝나는 대로 지급이 이뤄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까지 통근버스 이용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예

외적인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했다.

올해 1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까지 보상범위에 포함됐다.

이 사고는 올해 5월 1일 영암군 신복면 주암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60대 후반에서 80대 초반 노인인 무 수확 작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했다. /영암=전북한 기자 jbh@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